ELIO'S LITTLE DISCOVERIES

Two Sides of the Fence

울타리 양쪽 · 관찰한 것만 말하기



11세 · Day 056 · 함께 읽기 · 4장면



Mum looked at the bench under the leaves. “On a hot day, that shade is the only cool place we have,” she said. “I sit here every afternoon.”



Bori stood between them with her wings out. “The tree was here before the fence,” she said. “It should stay just as it is, every branch.”



Elio walked slowly along Tam’s bed. The cabbages near the fence were small and pale, while the ones at the far end were twice as big.



He walked back and sat on the bench in the cool shade. The leaves made a green roof over his head, and he did not want the branches cut.

함께 발견해요

읽기 전

표지의 사과나무와 울타리를 봐요. 같은 나무가 한쪽에는 좋고 한쪽에는 나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봐요.

함께 읽을 때

울타리 가까운 양배추와 먼 양배추의 크기와 색을 비교해요. 벤치의 그늘도 함께 살펴봐요.

생각 나누기

탐과 엄마는 각각 무엇을 원했나요? 두 사람이 모두 조금씩 얻은 방법을 원문에서 찾아봐요.

생활에서

집 근처에서 그늘과 해가 필요한 곳을 함께 찾아보고, 무엇을 바꿀 수 있고 무엇은 어려운지 이야기해 봐요. 나무를 자르는 일은 어른이 해요.

오늘의 그림과 이야기를 함께 즐기는 과정이에요. 혼자 읽기나 말하기를 시험하지 않아요.

ELIO original story · 제1판
교육자·보호자·아이의 사용 검토는 별도로 필요합니다.